# 고건, 지지율 회복 나섰다

## 대통령과 공방 이후 한자릿수
## 유권자와 접촉 확대 반등 도모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고건 전 총리가 2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 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고건 전 국무총리측이 새해를 앞두고 지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비록 일부 여론조사 결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과의 공방 이후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대 아래로 주저앉은 데 따른 위기의식에서다.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조속히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가 축소될 수도 있기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여권의 제3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고 전 총리로서는 지지율 제고를 통한 위상 강화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고 전 총리는 28일 예술의 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가보다 해야지..."라면서 다소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캠프의 한 인사는 "며칠 뒤 각 언론사에서 발표할 새해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지율이 상승한다면 정계개편 추진작업이 탄력을 받겠지만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할 경우 하락세가 고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고 전 총리측은 유권자와의 접촉면 확대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남부 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한데 이어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피카소 특별전을 관람했다.

그는 전시장 내에서 사인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고, 악수를 교환했다. 한 여자 어린아이에게는 볼에 '뽀뽀'를 해주기도 했다.

그는 "연극과 영화도 즐겨보지만, 가끔은 미술전시회도 찾는다. 예전엔 샤갈전시회에 간 적이 있다"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저녁 때는 마라톤 선수 황영조씨와 양궁 국가대표 출신인 이은경씨 등이 올림픽 공원에서 개최한 '스포츠 스타들의 자선 일일호프'에 참석했다.

미술전시회와 체육 스타들과의 만남 등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가벼운 일정을 소화하면서 노대통령과의 공방 과정에서 흠집이 난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캠프 일각에선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정계개편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세력이 없이 필마단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지지율 정체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이나 기존정당 입당 등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

한 측근은 "수개월전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민주당 입당이나 신당창당 등을 권유했지만 고 전 총리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 전 총리는 원탁회의를 통해 내년 3~4월에 국민통합신당을 창당하자는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자신있게 말 할 실적 있다"

## 노대통령 "참여정부 들어 지역·권위주의 해소 진척"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또 다시 참여정부의 공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신규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참여정부가 국민들 한테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면서 "그러나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얘기 한다면 자신있게 얘기 할 수 있을 만한 정부의 특성도 있고 실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의 노력 또는 실적을 큰 분야로 나눈 뒤 "어떤 평가를 명제로서 딱 뽑아서 얘기한다면 상당히 강한 특성을 가진 정책적 업적이 있다"는게 노 대통령의 입장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루 전 부산 방문에서 참여정부의 정책 공과와 관련해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역사는 반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되돌아가지 않는 역사를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역사의 진보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확산되고, 권력이 보통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진보의 동력은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4·19는 역류했으나 87년 6월 항쟁은 문민정부 시기의 하나회 척결을 통해 군사독재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 다음 과제는 특권과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해소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과제는 참여정부 들어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시장과 정치를 지배하는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올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 이건희, 현대차 정몽구, LG 구본무, SK 최태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에 앞서 별도로 마련된 환담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도 참석했다. 노 대통령이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이들 총수들과 접견 형식으로 만남의 자리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 보고회에 참석한 삼성 이건희회장 ,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 '빅3' 내년초 다시 해외로

## 대선구상·주요 인사 면담 명분
## 각 진영 의식 방문계획 비공개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3'가 신년초부터 잇따라 해외 방문길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결전의 해'를 맞아 대선구상과 정책개발, 주요 인사 면담 등을 명분으로 경쟁이라도 하듯 외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 특히 당내 대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출국 계획에 대한 이들의 '눈치보기'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당 대표직 퇴임 이후 독일과 중국을 잇따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표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다시 외국방문길에 오를 계획을 갖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당초 올 연말 유럽 또는 아시아 국가를 순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일정을 조정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출국계획을 다시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검토대상에 오른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등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최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과 일본 방문에 이어 내년초에는 인도와 중동을 찾을 예정이다. 이 전 시장은 특히 자신이 기업 경영자 시절 사업차 출장을 자주 갔던 중동 국가에서 에너지, 경제협력, 신성장 동력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방문도 검토중이다.

경기지사직 퇴임 후 국내에서만 대권행보를 계속했던 손학규 전 지사도 다음달 말께 미국이나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도지사 재임 4년간 21차례의 해외출장을 통해 113개 외국기업으로부터 140억5천만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 냈던 손 전 지사는 이번 외국방문에서는 '얼굴알리기'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들 '빅3'는 한결같이 해외방문 계획에 대해 공개를 꺼리며 서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대선주자 진영 관계자는 "해외 일정에 대해서는 모든 캠프에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캠프 내부에서도 잘 파악이 안될 정도"라며 "계획이 취소되는 것을 우려한 것도 있지만 각 진영이 서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정치공작 대통령 당선

## 한나라, 무효 입법 추진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8일 "지금까지는 정치공작을 해도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끝이었다"며 "이런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허위사실이나 정치공작 등으로 표심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면 당선 무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표심을 왜곡해서 대통령이 되는 대선은 지난 번으로 끝내겠다"면서 "정치공작 근절을 위해 선거관계법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벌써부터 그런 조짐을 보이는 데 정계 개편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통령 기억상실증 걸렸다"

## 한나라, 노대통령 '부산발언' 맹공

한나라당은 28일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 발언'에 대해 "정도를 넘었다",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곤란하다"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한마디로 노 대통령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 가슴에 못을 박는 고통과 절망을 주고도 그렇게 쉽게 말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이러니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겠느냐"면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를 주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절망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정책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임기를 마감하는 대통령의 도리이지 지금 대통령이 하는 짓이 대통령이냐. 지금 국회의원 선거유세 다니느냐"고 원색적으로 공격한 뒤 "임기 1년 남았다고 자기 맘대로 임기를 쓰는 것인지, 제발 정신차려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서민을 살피고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달라. 갈데 없으면 청와대에 앉아 있고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30대 여성이 27일 지하 쪽방에서 영양실조로 숨진 지 며칠 만에 발견된 사건을 거론하면서 "주민등록 말소 인구가 60만명에 달한다. 국민 100명당 1.5명꼴로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있는데 노 대통령은 정말로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산행안내

12월 30일(토)
▲광주토요산악회 1봉 영화산(총 난산행) 12월30일(토) 08시 광주역 문화회관후문공유출발 http://cafe.daum.net/gwangjutoyo T.011-608-4267,011-634-2044
▲해향토요산악회 경남 마산 적석산 12월30일(토) 07시30분 광주역(문예회관후문공유)출발 T.019-392 4277

12월 31일(일)
▲한울산악회 영광 구수산(월출교생태탐어산행) 12월31일(일) 0800시 국제호텔건너편 광주은행앞(문예회관후문공유)출발 ※네이버카페:한울산악회해와, 보험가입T.017-610-0659,011-636-0329
▲전남산악회 곡향 내연산 2007년 해맞이산행 12월31일(일) 2200시 광주역 광장 출발T.010-9776-3630,011-642-5197
▲요산회 합천 가야산(해맞이산행) 12월31일(일) 23:00시 광주역출발 T.016-611-1509
▲에향토요산악회 울릉도 성인봉 (일출산행) 12월31일(일) 05시 15분 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T.019-392-4277
▲광주백호산악회 제주도 한라산 1박2일 해맞이 특별산행 12월 31일(일) 08시 광주공원 집결 http://cafe.daum.net/lajwhitetiger T.010-9866-9859
▲광주거북이산악회 여수 향일암 해맞이행사 12월31일(일)~1월1일(월) 1박2일 14시30분 무등경기장 정문견1차편 출발 ※다음카페:http://cafe.daum.net/kwji T.017 602-6077,011-602-3263
▲광주토요산악회 한라산 새해일출과 마라도관광 12월31일(일) 07시 광주역(문예회관공유)출발 http://cafe.daum.net/gwangjutoyo T.011-603-4267,011-634-2044
▲청운산악회 1박2일 일출산행 주왕산 백암숙부 동해월송상원길 송사공원 공수도항산 12월31일(일) 07시30분 박은로타리(광주여,문이회관공유)출발 ※다음카페:풀싱광광 T.011-605-3477
▲무등산악회 경남 합천 일여산 12월31일(일) 06시 롯데백화점정문무앞중앙은행앞공유출발 T.011-602-6278,011-604-2003
▲광주블랙아크산악회 완도 삼문산 해넘이산행 12월31일(일) 16시 광주설팩아크정부앞(백운동 신목교회앞공유)출발 ※선착순90명까지 T.011-603-5747
▲광주호남산악회 경주 불국사, 토함산, 석굴암 12월31일(일) 22시 광주역 광장(문예회관공유)출발 ※다음카페:광주호남산악회 ※예약바람 T.010-6245-7231,011-616-5934

2007년 1월 1일(월)
▲광주한길산악회 남해 망운산,호구산 1월1일(월) 0000시 광주역 출발 T.222-3253,010-7619-0659
▲샐봉산우회 포항 내연산종주 호미곶 일출, 온천욕 부터 산행 1월1일(월) 22시30분 연수체육관앞에 회관후문경유)출발 T.011-603-0659,018-9000-6923

2007년 1월 2일(화)
▲영주산악회 부안 월명봉, 관음봉, 내소사 1월2일(화) 08시 영주체육관앞(문예회관정유)출발 ※선착순 여우천수 T.011-608-2208
▲불성산악회 가천 보리산 금래봉 1월2일(화) 07시40분 풍암중학교 앞 태티,문이회관정유)출발 ※다음카페:좋성광광 T.011-605-3477

2007년 1월 3일(수)
▲야대로산악회 무주 덕유산 향적봉 1월3일(수) 07시30분 상무지구 세정아울렛동아빙원,문 여의관경유)출발 T.011-649-4576
▲청록산악회 경남 봉명 대록산 1월3일(수) 06시 남원공차회관앞(문예회관유)출발 T.011-616-5917

2007년 1월 4일(목)
▲광주목요산악회 안수산(전북 광주군 고산면) 1월4일(목) 05시 광주역 앞 출발 T.011-604-9869,011-641-8855
▲울림산악회 남원 노덕봉-고리봉 1월4일(목) 08시 송북회관(문예회관 후문경유)출발 T.011-602-3515
▲광주한국산악회 지리산 공개바위 1월4일(목) 08시 양주체육관(문예회관경유) 출발 ※여약바람 T.011-615-2279

2007년 1월 7일(일)
▲광주산사랑모임산악회 지리산 관목대 1월7일(일) 08시 기동경기장후문 수영장앞 출발 ※다음카페:광주산사랑모임 T.019-7171-2682
▲광주산울림산악회 전북 무주 덕유산 눈꽃산행 1월7일(일) 07시30분 푸른숲학원 앞 출발 T.011-616-5917
▲광주태일산악회 호남정맥(백운 오봉자재-강천산-방축리 1월7일(일) 07시 전남도청앞(구)출발 ※다음카페:광주태일산악회 T.011-612-6199
▲무등산악회 전북 고창 하시봉 1월7일(일) 08시 롯데백화점정문 수만동 은방원경유)출발 T.011-602-6278

2007년 1월 14일(일)
▲삼각산악회 전남 진도 첨찰산(진도해상눈쇼핑) 1월14일(일) 06시 두암동 88버나드모텔앞 출발 ※선착순예약바람 T.017-601-7633

2007년 1월 20일(토)
▲신마루산악회 해외산행 베트남-캄보디아 관광 5박6일 1월20일(토)04시 광주출발 T. 011-612-1770

매주 토요일 출발
▲상무관광산악회 눈꽃축제 매주 토요일출발 ★한나산등반 1박2일(설반:10명이상출발 차량,1숙부2식,중식2回,입장료포함 ★태백산 등반 1박2일,2인평야상출발 차량,1숙박2식,이행지부담,1인 포함 예약 환수분의 T.062-361-1900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56명
KPA회원 2006년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량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2개월 종합반-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 1개월 무료 동영상제공(회원제) • 전용자습실 사용 가능
• 정독서실, 고시원 할인 혜택 • 사물함 무료사용 가능
•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특강 수강 • 심화반 선별 맞춤 수강
• 매월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 경찰학개론 | 형 법 | 형사소송법 |
|---|---|---|
| 김재규 교수 | 조태엽 교수 | 윤경근 교수 |
| 수 사 | 영 어 | 영 어 |
| 오수평 교수 | 오순아 교수 | 김지선 교수 |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개강 1월 5일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실시예상!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직 교정직 특채 2007년 3월~5월중 실시
소방공무원 보호관찰직 800여명 모집예상
행정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www.kjkimyoung.co.kr
2008년 1월 시험대비 1학년 대비반 개강
1차개강: 12월 18일, 2차개강 : 1월 2일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1월 4일(목)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1월 초
개설과목 :영어/언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 227-8088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 / 저자직강★
개강 1月 2日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